

한국문화교류 소식

40호 2021년 6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한글과 나



이 인 재

에어로링크(주) 회장, 동국대학교 초빙교수

1952년 3월, 취학 연령(8세)이 된 나는 거제도 동부면 동부국민학교(초등학교) 입학 앞둔 때, 삼촌으로부터 한글을 배우게 되었다. 당시 스무 살이던 삼촌은 북한(홍남)에서 국민학교 졸업 후, 할아버지의 농사일을 돕다가, 6·25전쟁으로 남한으로 피난 와서, 온갖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게 한글을

가르칠 실력은 되었다.

그때, 삼촌은 누런 마분지에다가 14자의 자음과 10자의 모음을 써가지고 와서 각 글자의 이름을 가르쳐주고는, 그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발성되는 원리를 설명하여 주었다. ‘ㄱ’과 ‘ㅏ’가 결합하여 ‘가’가 되고, 받침 ‘ㅇ’이 결합하여 ‘강’이 된다고…… 된 소리, 거센소리, 중모음 등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한글의 원리를 깨우치는 게 어렵지는 않았고, 며칠 후부터 나는 3학년 형의 교과서를 술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1학년 입학하여 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등의 교과서를 받았는데, 1주일 만에 독파하고 나서는, 상급반 형, 누나들의 책을 빌려보게 되었다. 나는 순식간에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이제껏, 나는 집에서 새끼 꼬고, 들판에 나가서 개구리 잡고, 산에 가서 나무하는 것 밖에는 몰랐다. 해는 어떻게 매일 떠올라 오는지, 해가 저서 들

어가는 집은 어디 있는지, 세상의 끝은 얼마나 깊은 벼랑인지,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 지옥으로 가면 어떤 무서운 것들이 있는지……

그 많은 의문들이 국민학교 1학년 말경에 거의 다 풀렸다.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우리 집에서 아무리 멀리 나가도 떨어져 죽을 벼랑은 없다. 중국 인구는 4억 7천만. 태평양은 모든 땅덩이를 덮고도 남으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은 백두산의 세 배 이상 높고, 미국의 ‘아’ 대통령은 아이가 아니고, 아이젠하워……

삼촌이 며칠간 가르쳐 준 한글이라는 무기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보물이었다. 그토록 쉽게, 짧은 시간에 익힌 도구로 그 수많은 책을 읽을 수 있다니! 나의 지식범위는 날로 늘어나고, 사고력, 상상력, 판단력도 따라서 늘었다. 나의 인생을 이토록 바꾸어 놓은 것이 한글 외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

성장하면서 나는 한문도 배우고 영문, 일문도 배웠다. 이 또한 나의 지적 성장의 큰 도구였지만, 그 효능에 있어 한글과는 도저히 비교를 할 수 없다. 외국 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글 자체의 짜임새와 효능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1980년 가을, 일본 나리타 공항 주재원이던 나는 30여 명의 일본인 직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28년 전 삼촌으로부터 배우던 방식으로.

혀 짧은 일본인들의 발음이 한국인과는 차이가 있었으나, 그들도 읽기는 금세 터득하였다. 이제껏 한국인 직원이 하던 ‘답송 안내 방송’은 어느새 그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들은 처음 보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으나, 한글로 적힌 것은 책이건 신문이건 막힘없이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도대체, 이렇게 배우기 쉬운 글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던 말인가? 신이 난 나는 그들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쳤다. 발성 능력이 떨어지는 그들의 노래가 명창은 아니었지만, 노래에 담긴 뜻을 깨달은 그들은 무척이나 한국 노래를 좋아했다. 그 중의 한 직원은 어디서 따로 배웠는지 일 백곡의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일 년이면 서너 차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한국 역사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올 때마다 역사적 명소를 혼자서도 찾아 다녔다. 그럴 때 그의 식사 메뉴는 삼계탕, 감자탕이었고, 김치는 필수 휴대품이었다.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일본을 떠나 온지도 40년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한글로 맺어진 옛 친구들과의 유대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잠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왕래가 끊겨졌으나, 이 팬데믹이 끝나는 날, 우린 다시 서로를 찾을 것이다.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 다음으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가장 큰 은인은 ‘한글’이었다. 세종대왕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옵니다! 



한국문화로서 태권도와 한글·한국어 세계화에 더욱 앞장설 때다



강 석 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사무총장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는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로서 현재 210개국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과 음식 그리고 한글 및 한국어 학습 열풍이 전 세계인,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영화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의 창조성과 역동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한국 문화의 전성기이다.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성이란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문화는 각각의 독특함이 있어서 문화에 우열이란 있을 수

없으며, 다름이 있을 뿐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문화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문화와의 공존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고귀한 가치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문화 서비스의 해외 수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구촌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두고 한국 문화로서의 태권도와 한국어 세계 전파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적인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엔데믹(풍토병)으로 바뀌었으며, 앞으로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기존 코로나 이전이 콘택트(접촉) 사회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언택트(비접촉) 사회가 된다. 앞으로의 사회는 온택트(온라인 접속) 사회가 되어, 디지털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된다. 이미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바이러스가 주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 간 서로 충돌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바이러스로 충돌하고 있다. 한 개인의 두려움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지금 세계적인 화두인 바이러스가 세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이기적인 탐심으로 가득 찬 인류에게 바이러스를 통해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인 것이다. 이제



◀ 지난 2020년 12월, '2020 GCS(밝은 사회클럽) 국제대회'에서 스리랑카태권도협회에 'ICKC 태권도발전기금'을 전달하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

인류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되돌아보는 '리셋'(reset)의 시간 즉 초심을 가지고 '나라는 의미를 넘어 자연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라는 화합과 공존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특정 문화 우월주의를 넘어서서 문화의 다양성 인정과 상호 문화 교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 한국 문화 중 태권도와 한국어 해외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다. 그 중 2011년 설립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이사장 위호인)와 2016년 발족된 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장 김준일)을 들 수 있다.

ICKC는 태권도 저개발국 어린이들에게 태권도 및 한국어 무상 교육을 위해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 총재 조정원)를 통해 수 년 간 태권도 발전기금을 네팔, 캄보디아 등 세계태권도연맹 국가협회에 전달해 오고 있다. 또한 해외 한글 학교 교사들의 기고, 태권도와 한국어와 관련된 국내·외 소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함으로써 한국문화의 교류 및 대중화에 일조하고 있다.

아시아발전재단은 지난 2019년 세계태권도연맹(WT)을 통해 아시아 지역 저개발국 소외계층에게 태권도 무상 교육 지원을 위한 지정 기부금 1억 원을, 그리고 2020년에 미화 15만 불을 전달했으며 올해에는 20만 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WT-ADF 케어스(Cares) 프로그램은 스리랑카, 부탄, 캄보디아 그리고 네팔에서 실시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발전재단은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을 대상으로 기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지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여 주 3회 태권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인 태권도와 한글 및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김준일 아시아발전재단 이사장은 독자적인 재단으로 지난 3월 11일 '한문화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본 기고를 통해서 ICKC 및 ADF 이사장님과 이 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화로서의 태권도와 한글 및 한국어 세계 보급을 위해, 최근 세계태권도연맹과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가 세종학당과 실무 회의를 한 바 있다.

무도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로서의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태권도의 정신과 한글 창제의 뜻을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의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은 하나이다. 195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모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가 무엇인가?’라는 미국 태권도 수련생들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태권도는 홍익인간을 만드는 도구다’였다. 코로나 상황인 현재 이 말이 마음에 크게 와 닿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를 관장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가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WT는 2008년 ‘태권도평화봉사단’을 창설하고 2009년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태권도 전공 대학생 위주 4인 1조로 방학을 이용하여 태권도 저개발국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해 2009년 제1회 세계장애인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했으며, 오는 9월 초 일본 도쿄에서 태권도가 장애인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처음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WT는 2016년 초 고아원생, 소년원생, 가정

폭력 피해 여자아이 등 저개발국 소외 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태권도 무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재 스리랑카, 부탄, 네팔, 캄보디아에서 1년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발전재단(ADF)의 재정 지원으로 올해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6년 4월 WT는 전 세계 난민을 돕기 위해 스위스 로잔에 별도의 독립적인 비영리단체인 ‘태권도박애재단’(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 THF)을 설립하여 요르단 아즈락 시리아 난민 캠프를 비롯한 여러 곳을 지원하고 있다.

WT 조정원 총재의 꿈은 태권도를 비롯한 모든 올림픽 스포츠를 포함하는 ‘올림픽 스포츠 평화봉사단’을 창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IOC와 유엔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WT는 뉴노멀의 온택트 시대에 지구촌 인류 사회에도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문화로서의 태권도와 한글 및 한국어 세계화에 국내외 태권도 단체, 한국 기업, NGO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2021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1년, 한국문화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성구,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진태, 김창욱, 노승락, 류성식,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유영찬, 유자효,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장정용, 전영섭, 정상설,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표재순, 허원준, 홍계화, 황경애, (재)아시아발전재단,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비아다빈치,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제일이엔에스(주), (주)P&H

가나다순, 2021년 1월 1일 ~ 2021년 5월 31일까지

총액 : 13,010,000원

역사,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서 지 예

파리한글학교 교사

프랑스에서 배우는 한국의 역사? 지구 반대편에서 배우는 한국의 역사라니, 파리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역사 교과서에도 한국은 6·25 전쟁이나 일본의 식민 지배,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먼 국가 중 하나로만 잠깐씩 얼굴을 비칠 뿐이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매년 연초면 열렸던 파리한글학교 설날 행사에도, 그 때 우리가 입고 있던 한복에도, 지금 내가 펜으로 꼭꼭 눌러쓰고 있는 한글에도, 몇 년 전 여름 한국에 갔을 때 가족들과 거닐던 궁궐의 마당에도, 아참, 저번에 가족들이랑 봤던 영화 <명량>,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에도, 역

사는 우리가 사는 현재에, 멀리 떨어진 프랑스에도 학생들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깝고도 먼, 한국 역사 공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파리 한글학교 8명의 중학교 아이들로 구성된 열매 3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껏 한글학교에서는 한국 역사 교육이 가지는 문화, 정체성 교육이 가지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언어 수업에 비해 다뤄지는 부분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적인 제약과 해외에서 구비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의 부족, 또 역사 과목이 요구하는 교사의 전문성 또한 그동안 해외 한글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크게 주목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재외동포를 위한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한 시범수업 운영이 파리한글학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수업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프랑스 정부의 잦은 학교 봉쇄령, 그리고 9월 17일부터 11월 25일 까지 두 달 남짓의 짧은 수업 기간으로 인해 계획했던 원활한 수업 진행에 차질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태정태세문단세, 삼강오륜, 장유유서, 봉유유신, 탕평책...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말들이지요. 고개를 가우뚱 하다가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가 '현재'의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이해'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편으로는, 식민지나 한국 전쟁 등 한국의 슬프고 어두운 역사적 사건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교사로서 걱정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시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이야기 합니다. 한글학교 역사 시간에 ‘일제강점기’를 배우고 프랑스 학교 역사 수업에서 다루는 ‘식민지’에 대해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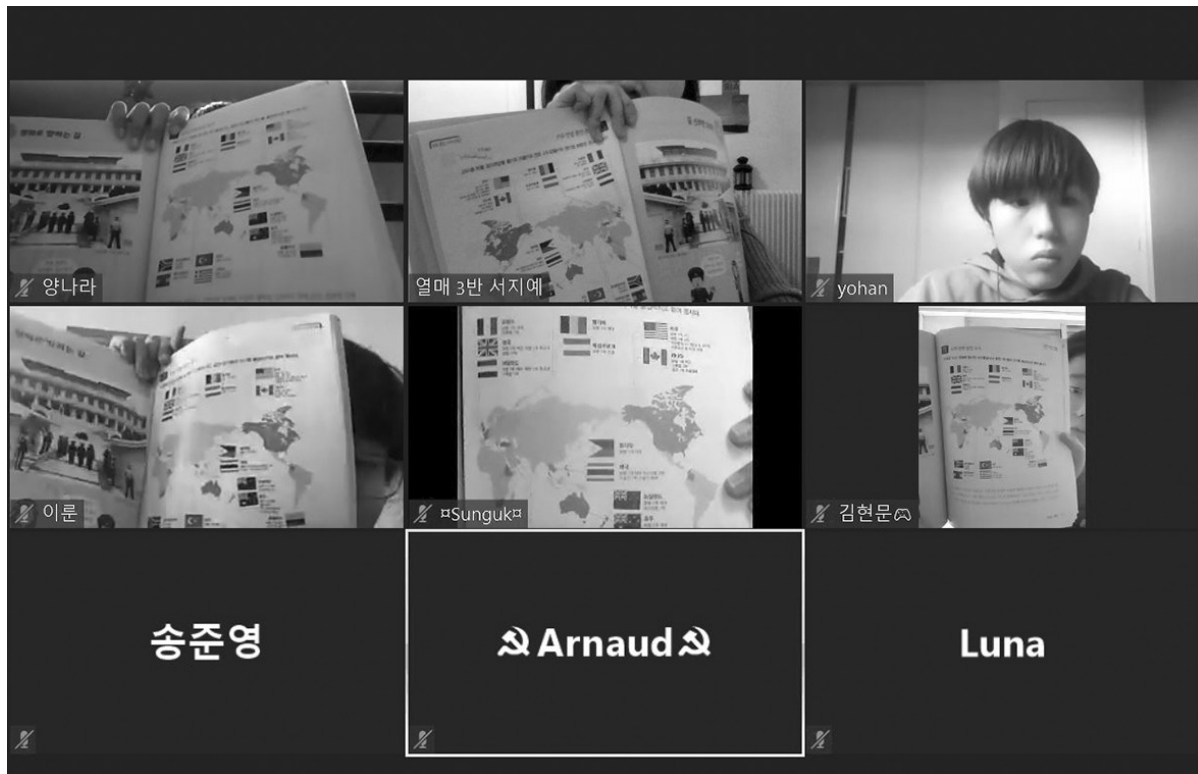
이처럼 재외동포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 수업은 단순히 민족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의 역사를 통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까지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한층 더 깊은 가치를 지닙니다. 3.1 운동과 유관순에 대한 수업에서는 같은 시기에 나치에 의해 핍박받으며 글로 아픔을 승화시켰던 안네 프랑크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공부하였습니다. 두 인물을 비교하는 숙제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유관순과 안네 프랑크는 둘 다 거의 똑같은 시기에 살았고, 비슷한 시기에 죽었고, 똑같이 전쟁의 패자 쪽에 있었다. 그들은 둘 다 이긴 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저항했다.”

“유관순은 3·1만세운동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안네는 나치로부터 숨어 살았어요. 다들 제국주의 전쟁 때문이에요. 안네는 일기로 표현했고 유관순은 행동으로 표현했어요. 독립과 전쟁의 끝을 못 보고 죽어서 안타까워요.”

이처럼 재외동포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는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와의 비교를 통해 보편적인 역사와 가치에 대해 보다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의 이해와 역사” 교재의 시범 수업이 끝난 후 파리한글학교 열매 3반에서는



▲ 파리한글학교 열매 3반의 수업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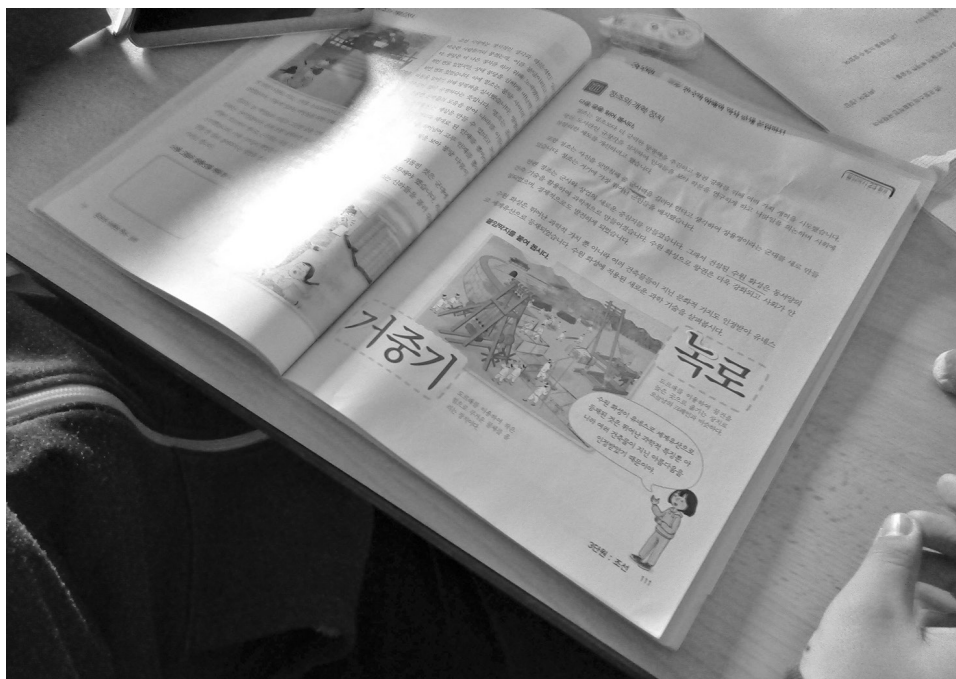
한국-프랑스를 비교하고 또 아우르는 역사 수업을 다시 8주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이 부족하여 자세히 다루지 못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초보 선생님의 욕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역사 수업을 통해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뿌리를 가진 현재의 “나”의 모습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인식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한국이 아닌 전 세계 곳곳에서 각자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재외동포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민족정체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쪽짜리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은 더 더욱 지양되어야 하겠지요. 한글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은, 아직은 초보 교사로서 어설픈 의견이지만, 프랑스 한글학교 아이들,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여러 나라의 한글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잠재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발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한글학교 수업이지만, 아이들을 ‘세계 시민’으로 자라나게 도와준다는 사명 아래 일하고 봉사하시는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있기에 한글학교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글학교의 1년이 마무리 되어가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했던 상황에서도 묵묵히 수업을 들어준, 이제 선생님보다 훌쩍 큰 아이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교사로서의 욕심일 수 있었던 역사 수업이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목’이라고 느낍니다. 파리한글학교 학생들에게는 한국 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기에 당장은 더더욱 멀리,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한국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 기억 속에 작게나마 그 자취를 남겼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 파리한글학교 열매 3반의 역사 수업 자료



인도네시아 짜아찌아족, 한글에 태권도 교육까지… “차렷, 경례”

인도네시아 동남 술라웨시주 부톤섬 바우바우시 경찰서 강당과 앞마당에서 우렁찬 한국어 태권도 구호가 울려 퍼진다. 12년째 짜아찌아어 한글 수업을 이어온 정덕영(60)씨는 “이달 1일부터 주 3회 태권도 무료 수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동남 술라웨시주 부톤섬 인구 50만여 명 가운데 7만 명을 차지하는 짜아찌아족은 표기법이 없어 고유어를 잃을 처지에 놓이자 2009년 한글로 짜아찌아어를 표기하는 방안을 채택해, 초등학교에서 주1회 짜아찌아어 수업을 한글 교재로 가르친다.

정 선생님은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을 접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한국의 아시아발전재단(ADF)이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해줬다”며 “태권도 사범 3명의 월급과 태권도복을 지원받아 이달부터 태권도 수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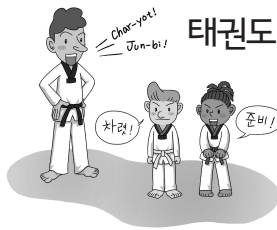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임에도 바우바우시 경찰서가 강당과 앞마당을 태권도 교육 장소로 내줬고, 현지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태권도 무료 수업에 매년 60명이 넘는 수련생이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 출처]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2021/04/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0028200104?section=search>



▲ 태권도 수련 중인 짜아찌아족 어린이들



오스트리아서 온라인 태권도 한마당 열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한국의 태권도와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오스트리아 온라인 한마당’이 지난 5월 1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2014년부터 매년 ‘비엔나 태권도 페스티벌’을 개최해 온 비엔나 무도관(관장 노베르트 모쉬)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행사로 변경한 것으로, 한국 국기원의 유단자들로 구성된 ‘오스트리아 국기원 마스터 협회’가 주관, 유튜브로 중계됐다.

개회사에서 오스트리아태권도협회 고문이기도 한 노베르트 모쉬 무도관 관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록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온라인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도록 후원해준 주오스트리아한국대사관과 여러 협찬 단체들, 참가선수들, 태권도 애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태권도 한마당에는 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세르비아에서 팀 및 단체들이 참가해 5시간 동안 품새 겨루기, 빠른 발차기 시합, 격파 시합 등을 벌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부산 모덕관 김철민(7단-국기원 심사위원부 부위원장) 관장과 관원 40명, 부산 모동체육관 최승호(8단) 관장과 최성우 사범(6단), 제자 7명이 참가해 행사를 빛냈다.

[기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김운하 해외편집위원, 2021/05/06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038>



▲ ‘오스트리아 온라인 한마당’ 태권도 시범 모습

■ ICKC,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태권도장 등록비 지원 시작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는 본회 박의근 재정위원장의 제안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태권도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지난 5월부터 실행하기 시작했다.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불우하고 마음의 상처를 지닌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태권도장에 다닐 수 있게 학원 등록비를 매월 지원하여, 이들 학생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고 또한 한국어를 유창히 익혀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취지이다. 우선 일차로 경기도 화성시의 베트남 다문화가정 초등학교생 2명(3학년, 6학년)이 인근 태권도장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고, 추후 본회의 재정 여건,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사업 제휴,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계속 및 확장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기관 및 단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를 기다립니다.

■ ICKC, 해외 한글학교에 도서 발송

ICKC는 해외 각국의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전하는 한글학교 소식을 소식지에 매호 게재하고 있다. 해외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일하거나 학교를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애환, 반대로 우리말과 글, 우리 문화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보람이 이 글들에 잘 나타나 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이인재 회원(에어로링크(주) 회장)의 저서 『1952 이순신』과 『나와 6·25』를 해외 6개국(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글학교로 발송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운송이 불가하거나 원활하지 못 하지만, 추후 상황이 개선되면 이번 경우처럼 더 많은 나라로 도서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한국사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이 해외 한글학교에서 교육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서를 기증한 이인재 회원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해외 교육자료 발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최불암 ICKC 고문, 일본영화비평가대상 특별상 수상

ICKC 고문인 최불암 배우가 지난 5월 31일 동경 신주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0회 일본영화비평가대상(日本映画批評家大賞) 시상식에서 국제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로 수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최불암 배우는 영상으로 대신 인사말을 전했다. 최불암 배우는 “나는 한 일문화교류를 통해 후쿠시마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쓰나미로 재난을 입은 후쿠시마 가설주택의 어린이들과 고향을 떠나지 않은 후쿠시마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두부하우스’라는 영화가 오늘 이 상을 받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두부하우스가 방영되면서 후쿠시마의 가네코 에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이 한국의 어린이재단을 방문해 사랑을 전해주었다. 이러한 우정의 교류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일본영화비평가대상’은 영화계에 공적을 남겼거나, 다음 세대에 큰 도움을 주는 영화인들에게 수여된다. 영화평론가 아오키 켄스케(青木 謙介)씨는 이날 시상식에서 “최불암씨는 한국의 국민 배우이며 한국 영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훌륭한 배우다. 어떤 역할이라도 작품을 멋지게 소화해낼 뿐만 아니라 출연한 영화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기네스북에 실릴 정도다. 또한 후쿠시마 복구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힘써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소개했다. 지면을 빌려 최불암 ICKC 고문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제30회 일본영화비평가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최불암 고문의 영상 수상소감

[기사 출처] 월드코리안뉴스, 동경, 이승민 객원기자, 2021/06/03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34>

■ 아시아발전재단,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발간

ICKC 前 이사장인 조남철 방송대 명예교수께서 상임이사로 있는 (재)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장 김준일)에서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김용필·임영상 외)를 발간하였다. 한중문화학당과 동포세계신문이 공동 기획한 이 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귀환동포 및 외국인 집거지 28곳을 탐방해 정리한 ‘스토리 가이드북’으로, 60여 이주민과 이주민지원단체, 한국인 활동가 등을 인터뷰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각 도시마다 온라인 위키백과 문화지도와 연계해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며, 조남철 상임이사는 “‘더불어 함께 하는 아시아’를 꿈꾸는 ADF의 의지가 담긴 책”이라고 이 책을 소개했다. ADF는 지난 2018년에 한국어와 태권도의 국제적 교류 및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ICKC와 체결한 바 있다.



■ 유자호 시인, 신작 시집 『신라행』 출간

마스크

유 자 호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 전철 안이 조용해졌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 입맞춤이 사라졌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 표정들이 사라졌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 예쁜 눈만 남았다
비로소 공평해졌다 /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 유자호 : 1968년 신아일보(시), 불교신문(시조)으로 작품활동 시작. 공초문학상, 정지용문학상, 편운문학상, 한국문학상 수상. 현재 지용회장, (사)구상선생기념사업 회장, 시와시학 주간, (사)대한언론 편집위원장.

유자호 ICKC 회원의 신작 시집 『신라행』이 출간되었다. 유자호 시인의 시집으로 17권째이며, 시선집을 합하면 21권째다. 유 시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고, 미 중 대결의 국제정세에 핵무장을 강화하는 북한을 보며 한반도의 최초 통일을 이룬 신라의 정신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신작 시집 발간을 지면을 빌려 축하드리며, 아래는 인용한 시 「마스크」에 대한 유자호 시인의 소개글이다.

“소개한 작품은 코로나 시대 새로운 패션이 돼버린 마스크를 다룬 작품이다.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어 외출할 때는 마스크부터 챙긴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이 어색하니 기가 막힌 일이다.



▲ 신작 시집 『신라행』
(동학사간행, 140쪽, 1만 원)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전철 안이 조용해졌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사람들의 표정을 알기 어려워졌다. 눈만 보이는데 모두가 예뻐 보인다. 사람의 눈이 그렇게 예쁘다는 것을 마스크가 가르쳐주었다.

마스크가 준 가장 큰 미덕은 공평하다는 것이다. 권력자나 장군이나 유명인이나 부자나 마스크를 쓰니 모두 같아졌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역병에 의해 우리 사회가 비로소 공평을 찾았으니 마스크가 준 공로라고 하겠다.

이 시는 세태를 풍자한 작품이다. 아무쪼록 마스크 잘 쓰고 백신도 맞아서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 회우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6.03.30.	총회 및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9.03.29.	총회 및 창립 8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종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호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까지를 손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

아시아발전재단은 아시아 및 다문화 관련
교류협력사업, 인재양성사업, 공익문화사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재단입니다.

슬로건 Slogan

Great Asia!
다시 아시아로!



비전 Vis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미션 Mission

교류와 협력
나눔과 상생



아시아발전재단 주요사업

교류협력 문화교류캠프, 학술활동 지원, 한민족청년캠프 등

인재양성 아시아·국내·동포 장학사업, 이중언어교실 지원 등

공익문화 해외 태권도·한글 보급, 다문화학생 경제교육 등

